증권가 "금투세 폐지·도입 여부 미룰수록 비용만 늘어가"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에도 금투세, 본회의 심의에 못올라

증권가, 청원 통한 유예 기대 안 해 내년 1월 시행 대비 시스템 구축 중

한국주식투자자연합을 비롯한 12개 투자자 단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금투세 폐지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시행 4개월여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됐음에도 본회의 심의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에서도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국민적 열망 속에도 정치권의 공방만 치열할 뿐이고, 증권사 내 전산 시스템 비용만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에 금투세 폐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청원은 총 5건이다. 5건의 금투세 폐지를 요청한 청원은 17만6618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이중 청원 성립 기준인 5만명을 넘긴 청원은 2건으로 청원 결과 13만4633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앞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2022년 10월 당시 청원은, 동의 기간 내(30일) 5만명의 동의를 얻은 금투세 관련 첫 청원으로 '본회의불부의'로 붙여져 금투세 유예를 이끌어 냈다. 이때문에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기대가 큰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난 4~5월 이뤄진 금투세 폐지 청원은 21대 국회 종료로 임기만료 폐기됐고, 다시 같은 주제로 5~6월 진행된 청원도 위원회심사까지는 이르렀으나 국회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25일 종료된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 성립은 투자자들이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월초 "사모펀드는 환매에 따른 이익을 현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한다"며 "금투세가 강행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금투세 대상이 되고, 세율은 최대 27.5%로 줄어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금투세 시행 시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세율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금투세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항간에 떠도는 '초부자 사모펀드 세력과 연계됐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는 소탐대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증권가는 지난번과 같이 청원을 통한 유예를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금투세 폐지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전산 시스템에 비용을 들이고 있다. 설령 금투세가 폐지돼도 지금껏 구축한 시스템 관련 비용은 회수할 수 없고, 시행한다면 내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자기자본 20대 증권사의 전산운용비는 총 35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금투세 폐지·도입 여부를 미룰수록 비용은 더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금투세를 걷으려면 원천징수를 위한 인프라 개발이 필요한데 대형증권사는 신속하게 이를 마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소형증권사는 부담이 더 크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완화를 언급한 '이재명 2기 체제'를 지켜보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투자를 완벽하게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라면서 "만약에 투자자들의 기대처럼 폐지되면 매몰비용을 보전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K-화장품 수출액, 10년 내 전세계 1위권으로 이끌 것"

장외CEO 인터뷰

최인석 레페리 의장

IPO 도전에 "일종의 국가대표 되는 것"
크리에이터 문화콘텐츠 IP 중심
'뷰티테일 밸류체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

코스닥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글로벌 뷰티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그룹 레페리의 최인석 의장이 19일 서울 강남구 소재 레페리 본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손진영기자 son@

"수백여명의 뷰티 크리에이터, 약 1000만명 이상의 구독자들과 대한민국 뷰티 문화를 이끄는 존재로서 레페리가 가장 눈에 띄는 'K-뷰티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 한국 화장품 산업이 10년 내 프랑스를 제치고 1위. 금메달을 따낼 수 있도록 기여하는 국가대표 기업이 되겠다."

글로벌 뷰티 크리에이터 비즈니스그룹 레페리가 신한투자증권과 상장 주관계약을 체결하면서 코스닥 상장 도전을 알렸다. 레페리는 꾸준한 외형 성장을 통해 탄탄한 수익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뷰티 기업이다. 기존 '크리에이터' 비즈니스와 더불어 화장품 유통 플랫폼 사업까지 분야를 확장시키면서 기업공개(IPO) 기대감을 올리고 있다.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로 최대 실적 경신… '시기적절'한 코스닥 도전

최인석 레페리 의장은 "기업공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일종의 국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일종의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투자자에게 확실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시기에 기업공개(IPO)에 나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레페리는 상장 자체가 목적이 아닌 만큼 주가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최 의장이 꼽은 레페리의 강점은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함과 동시에 남다른 '경쟁력'과 '시장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레페리는 독자적인 크리에이터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중심으로 뷰티 마케팅과 생산, 유통 등을 총괄하며 '뷰티테일 밸류체인'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2013년에 설립된 레페리는 400여명의 크리에이터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 및 콘텐츠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기업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359억원, 영업이익 50억700만원을 달성하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7%, 3848%씩 증가한 수치다.

◆지금은 'K-뷰티 웨이브'… '뷰티테일 밸류체인' 통해 뷰티 문화 선도할 것

최 의장은 지금을 한국 뷰티 산업의 호황기인 'K-뷰티 웨이브'라고 명명했다. 다만 그는 "국내 중소 뷰티 브랜드들이 제품 품질 향상과 제품 다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성과"라면서도 "국내 화장품의 품질은 좋아지는데도 제품 가격은 오히려 할인 경쟁으로 인해 하락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수요에 단순 공급형 수출로 대응하는 방식은 국내 뷰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부연이다. 선진적 뷰티 문화 이미지를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부터 리테일(유통), 콘텐츠를 통한 마케팅까지 모두 아우르는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의장은 "K-뷰티가 진정한 고급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 차별화된 산업 표지셔닝에 힘써 발돋움해야만 하는데, 이를 레페리가 해내고자 한다"며 "'뷰티테일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한국 화장품 수출액을 5년 내 전 세계 2위권, 10년 내 전 세계 1위권 산업으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뷰티테일 밸류체인'이란 뷰티 문화를 주도하는 크리에이터 육성부터 온오프라인 마케팅 솔루션, 소셜미디어 기반 커머스 및 라이브 커머스, 뷰티 제품 제조 및 유통까지 포함하는 레페리의 통합 비즈니스 모델이다.

아울러 '뷰티 쇼퍼테인먼트(쇼핑+엔터테인먼트)'를 구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 의장은 "최근 아시아태평양(APAC) 쇼퍼테인먼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레페리는 뷰티테일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뷰티 쇼퍼테인먼트 산업을 선도할 계획"이라며 "현재 글로벌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APAC 쇼퍼테인먼트 시장은 연평균 26%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레페리가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게 된다면 국내 최초 글로벌 뷰티 쇼퍼테인먼트 상장 기업이 된다. /신하은 기자 godhe@

키움증권, 해외투자자 대상 절세계좌 이벤트

ETF 거래수수료 우대·상품권 지급

키움증권은 해외투자자들 대상으로 다양한 절세 계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연금저축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타사에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수수료를 1년 동안 우대하고, 순입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9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추가로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용사 연계 이벤트를 통해 최대 4잔 스타벅스 커피와 최대 12만원까지 문화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형 펀드와 국내 상장 해외 ETF 등을 연금저축계좌나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투자하면 이자, 배당 등의 세금을 아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매년 최대 연말정산을 통해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필수 아이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단 중도해지 시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세액 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정부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등에 대한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라 중개형ISA계좌의 인기 또한 높아지고 있다.

키움증권은 중개형ISA 신규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하고 500만원 이상 순증 시 최소 1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현금을 추첨을 통해 추가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다음달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투증권, ELS 온라인 전용브랜드 출시

'TRUE ON ELS'… 상품접근성 개선

한국투자증권은 주가연계증권(ELS) 온라인 전용 브랜드 'TRUE ON ELS(트루온 ELS)'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TRUE ON ELS' 브랜드 출시와 함께 최소청약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고, 청약 기간도 2일에서 5일로 연장하는 등 상품 접근성도 크게 개선했다. 온라인 전용 상품에 걸맞게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청약 기간은 8월 26일부터 30일까지다.

TRUE ON ELS 5회는 LG화학과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세이프존 스텝다운형' 상품이다. 만기는 3년이며, 6개월 단위로 상환 여부를 판단한다.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85%(6, 12개월), 80%(18개월), 75%(24개월), 70%(30개월), 60%(만기) 이상이면 연 12.2%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 /허정윤 기자